

##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성장배경과 조형적 특성

Growth Background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ntemporary Enameling

주 저 자 : 유미현 (Ryu, Mi Hyun)

동양대학교 교수  
ryumh0530@hanmail.net

<https://doi.org/10.46248/kidsr.2020.1.238>

접수일자 2020. 2. 25. / 심사완료일자 2020. 3. 15. / 게재확정일자 2020. 3. 25.  
이 논문은 2019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iversity of items, new expression techniques, the use of composite materials, and color expression in order to examine the growth background of Korean modern enamel crafts and to examin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enamel. Object of analysis was 1,497 works published for 37 years by "Society of Korean Enamelists", the analysis was performed by categorizing the function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unction contained in the artist's works, materials, and col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n contemporary enamel shows the largest number of works occupied by wall decoration (585) and jewelry (421), also its main featur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① formal change of jewelry, ②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 and decoration, ③ pursuit of sculpture and painting artistic. Metals (99.3%) were used as base material for enamels. Jewelry (57%) and silver (49.3%)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in metal, and the items with decorative crafts such as jewels, objet, and wall decoration were actively used mixed with other materials Jewelry was mixed with jewels (85.1%), and wood (33.3% ~ 93.8%) was frequently used with other materials.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abstract works prevailed in the early days, but the theme has been diversified since the 2000s, and the works on the theme of flowers are characterized by high frequency regardless of the times.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warm colors of red or yellow series were frequently used in color.

## Keyword

Korean Contemporary Enameling(한국현대칠보), Formative Characteristics(조형적 특성),

## 요약

본 연구는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 칠보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품목의 다양성, 새로운 표현기법, 복합 소재의 활용, 색채 표현 등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한국칠보협회를 통해 37년간 발표된 1,497점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기능 분류, 작가의 작품에 담긴 기능 별 특성, 소재, 색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현대 칠보는 벽장식(585개)과 주얼리(421개)가 차지하는 작품수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①주얼리의 형식적 변화, ②전통과 장식성의 재해석, ③조각과 회화적 예술성의 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칠보 바탕 소재로는 99.3%가 금속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금속에서는 주얼리(57%)와 함(49.3%)이 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작품 특성상 주얼리와 오브제 및 벽장식으로 장식적 요소가 강한 품목은 타 재료의 혼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주얼리는 보석(85.1%)을 혼용하고, 그 외 소재로는 나무(33.3%~93.8%)의 활용 빈도가 높았다. 시대별 주제특성을 보면 초창기에는 추상적인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부터 주제가 다양해졌으며, 꽃을 주제로 한 작품은 시대를 불문하고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색채에 있어서도 빨강 또는 노랑계열의 난색을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목차

###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및 방법

## 2.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태동과 성장과정

- 2-1.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성장 배경
- 2-2.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시대적 양상

## 3.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조형적 유형 특성

- 3-1. 조형적 분석을 위한 작품의 유형화
- 3-2. 분석 유형별 작품 특성

## 4. 조형적 특성 분석

### 1. 서론

#### 1-1. 연구 배경

칠보(七寶, enameling)는 불과 색채의 예술로 금속, 점토, 유리 등의 바탕 재료에 여러 가지 유약을 얹어 소성하여 색상을 표현하는 기법의 하나이다. 아름답고 귀한 색채 장식기법으로 과거 궁전과 귀족계급의 생활 용품에 많이 쓰였다. 한국의 칠보 공예는 오래전 삼국 시대에 이미 그 기술이 유입되었고, 조선시대에 파란기법으로 은장신구, 귀걸이, 반지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전통적 공예 기법으로 가치를 가진 칠보는 1, 2차 대전 이후 신기술이 발전되고 가치관의 변화와 반모더니즘 현상 속에서 전통적인 것을 배제하는 일이 생겼다.<sup>1)</sup> 이렇게 과거 긴 세월 침체기를 거쳤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작가들의 새로운 표현양식 추구를 통해 전통기법에 새로운 조형감각을 더하고, 독창적인 개성 표현과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다양하고 자유로운 양식의 칠보 작품이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성장 배경을 속에서, 현대 칠보공예가 전통의 바탕위에 다양한 품목으로의 확대과정과 새로운 표현기법으로 기존의 소재와 복합 소재의 활용 특성, 나아가 작품에 담긴 색채 표현의 분석을 통해 칠보공예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칠보공예의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칠보 작품의 전개 방향과 작품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1)유미현, 미국 에나멜 브로치의 성장과 조형적 표현,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14, p.699

- 4-1. 칠보 바탕 소재 특성
- 4-2. 소재 활용
- 4-3. 주제와 유형
- 4-4. 색채 특성

### 5. 결론

### 참고문헌

#### 1-2. 연구 목적 및 방법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성장배경과 조형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창작을 위한 칠보 공예 주제와 작품에 내재된 수월성을 찾아내며 향후, 칠보 작품의 제작 과정과 새로운 작품세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제작기법과 재료 등을 연구하여 한국성이 깃들어 있는 칠보 공예품이 세계인들이 선호할 칠보공예품으로의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사)한국칠보협회<sup>2)</sup>에서 주관하는 협회전에 출품된 작품들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가정 하에 1983년(창립) 부터 2019년까지 37년간 협회전을 통해 발표된 1,497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칠보공예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 주얼리, 그릇(器), 함, 오브제, 벽장식,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최근 발표된 작품집(2019년 발간)을 기준으로 5개년을 기준으로 하여 7개 구간(I~VII)으로 구분하였다(단 초창기인 1983~1989년은 초기임을 감안하여 1개 구간으로 분류하였음). 각 기간별로 출품된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작품의 조형적 특성, 기능별 특성으로 바탕소재, 바탕에 사용된 금속의 표현기법, 주제 및 색채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Chi-Square 분석을 통하여 기간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도구로는 MiniTab을 사용하여, 신뢰도 95% 수준에서 기간별로 작품들의 비율이 변화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2) 1983년 창립 당시 명칭은 '한국칠보디자인협회'임.

## 2. 한국 현대 칠보의 태동과 성장과정

### 2-1.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성장 배경

한국의 현대 칠보는 1960년대 말 독일과 일본에서 배우고 돌아온 김기련, 이방자 여사와 같은 분들에 의해 칠보 유약의 개발, 교육 등 본격적으로 보급·발전되었다. 이 시기의 정부는 경공업 수출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그 과정에서 공예품은 수출 상품으로서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칠보는 다양한 색상과 양질의 유약을 바탕으로 재료와 기법, 개념이 모두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었으며, 특히 칠보는 상품, 취미, 예술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초창기 칠보 작가들은 예술 뿐 아니라 취미칠보 교육에도 힘을 쏟았는데, 그 영향으로 1970년대에 칠보는 주부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취미활동이자 가계에 보탬이 되는 부업으로 여겨졌으며,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칠보교실이 여러 백화점과 문화센터에 개설되었다. 이후, 대학에서 금속공예 실기교육이 기법중심의 교육으로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칠보 역시 대학의 정규 교과목에 포함되었다. 대학에서 칠보를 배운 전문가들을 통해 칠보를 예술로 인식하고 작업하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칠보작가동인회 등을 결성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등의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sup>3)</sup>

1970~80년대에는 칠보 은 식기가 유행하면서 귀한 예물에 은 식기와 노리개 가락지가 필수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저온에서 쉽게 소성해 낼 수 있는 칠보 유약이 개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저가의 칠보 상품이 등장해 1980년대 중반 이후 칠보의 전통적 가치가 낮아졌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술 집약적인 중공업 제품들로 수출 전략이 변화하면서, 수출상품으로서 칠보의 공예품 가치가 떨어졌다.<sup>4)</sup> 하지만, 70년대는 금속 공예가들이 실용성보다는 예술성에 가치를 두어 대중 속에 파고들었고 칠보에 관한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80년대는 한국 칠보 공예가 비약적인 발전으로 도약하는 시기였다. 1983년 창립한 ‘한국칠보협회’를 중심으로 칠보 가마, 유약들이 몇몇 칠보공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유통되었고, 대학은 물론 낙선재 등의 사회실습장을 통해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다.<sup>5)</sup> 그 후 칠보

공예의 사회교육에 힘입어 한국칠보협회의 활동 회원이 증가하여 본격적으로 칠보공예의 예술적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계기가 되었다.

### 2-2.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시대적 양상

현대 칠보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적 감각의 공예 작품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의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깊은 관계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으로 설정한 2019년을 기준으로 5개년을 기준으로 하여 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표 1]의 ‘평균 GNI/인를 보면 기간의 경과와 함께 15.8%~59.1%의 소득이 증가하는 동안 출품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을 시작한 1기간에서 VII 사이에 ‘평균 GNI/인’은 814.5% 증가하는 동안 출품 수는 211.6%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국가의 경제사정과 칠보 작품과는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 분석기간별 기능에 따른 종류를, [그림 1]에 출품작 종류의 연도별 변화 비율을 제시하였다. 주얼리를 활용한 작품이 III기간에 급격히 증가하여 꾸준한 작품이 출품되고 있으며, 벽장식에 속하는 작품은 꾸준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벽장식은 집안을 위한 장식으로서의 수요는 꾸준하며, 소득 증가에 따른 실내 장식을 위한 용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생활 밀착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릇 및 합의 비중이 확연하게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계화에 따른 제품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 1] 분석 기간별 국민 평균 소득과 출품 수

분석 기간	평균 GNI/인	작품	
		출품수	연평균
I 1983 ~ 1989	3,398	112	17.4
II 1990 ~ 1994	8,314	128	55.6
III 1995 ~ 1999	11,389	153	30.6
IV 2000 ~ 2004	13,575	152	30.4
V 2005 ~ 2009	21,084	216	43.2
VI 2010 ~ 2014	26,166	387	77.4
VII 2015 ~ 2019	31,075	349	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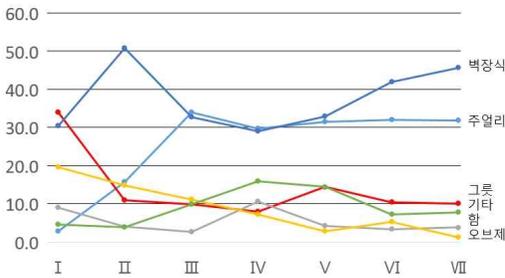
3) 성다솜, 1960년대~1980년대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양상, 기초조형연구, Vol.18 No6, 2017, pp.310~311.

4) <https://news.joins.com/article/23109741>

5) 장동광, 불과 색채의 예술, 그 변주성의 미학, (사)한국칠보공예디자인협회 30주년 기념전에 부쳐, 한국칠보공예디자인협회전 도록, 2012. .p.9

**[표 2] 분석기간별 기능에 따른 품목과 비율 N(%)**

기능 기간	주얼리	그릇	함	오브제	벽장식	기타	소계
I	3	38	10	22	34	5	112
	2.7	33.9	8.9	19.6	30.4	4.5	100
II	20	14	5	19	65	5	128
	15.6	10.9	3.9	14.8	50.8	3.9	100
III	52	15	4	17	50	15	153
	34.0	9.8	2.6	11.1	32.7	9.8	100
IV	45	12	16	11	44	24	152
	29.6	7.9	10.5	7.2	28.9	15.8	100
V	68	31	9	6	71	31	216
	31.5	14.4	4.2	2.8	32.9	14.4	100
VI	124	40	13	20	162	28	387
	32.0	10.3	3.4	5.2	41.9	7.2	100
VII	111	35	13	4	159	27	349
	31.8	10.0	3.7	1.1	45.6	7.7	100
소계	423	185	70	99	585	135	1,497
(%)	28.3	12.4	4.7	6.6	39.1	9.0	100



**[그림1] 분석 기간별 출품작 종류의 비율 변화**

### 3.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조형적 유형 특성

#### 3-1. 조형적 분석을 위한 작품의 유형화

현대 칠보 공예는 다양한 형태와 제작 기법으로 작가들의 작품 의도나 개성을 표현하는 개인의 스타일로 꾸준히 작품화 되고 있다. “20세기 장신구사에서 80년대는 가장 급진적인 변혁을 보여준 시기로 주얼리 형태가 확장되고 착용성에 관한 다양한 의문의 제기과 실험이 이루어졌다.”<sup>6)</sup> 는 영국의 랄프 터너(Ralph Turner)의 말처럼 현대 주얼리의 발전을 대변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현대 칠보 주얼리의 형식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작가들의 작품을 ①주얼리의 형식적 변화, ②전통과 장식

성의 재해석, ③조각과 회화적 예술성의 추구 그리고 ④기타 작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②전통과 장식성의 재해석은 다시 그릇의 장식성과 전통적 함의 재해석으로 나눌 수 있으며, ③조각과 회화적 예술성의 추구는 오브제 장식과 벽장식의 회화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분류는 작품표현 특성을 대상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작품의 유형과 특성을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 3-2. 분석 유형별 작품 특성

[표 3]은 위에서 분류한 4가지 유형별 칠보 작가의 작품과 표현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①주얼리의 형식적 변화에서 유미현은 가는 금선으로 뜨개질하여 그 위에 칠보를 해서 유연한 형태와 투명한 빛으로, 최연정은 브로치에 작은 그림으로 섬세하게 표현하는 등 기존의 화려한 보석의 상업적 주얼리와는 다르게 다채로운 색채의 칠보로 작품들이 표현되고 있다. ②전통과 장식성의 재해석된 작품으로는 담을 수 있다는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술적 감각으로 제작된 고귀한 장식적 요소는 실생활에서 사용과는 거리감이 있다. 김선봉은 금속을 망치성형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 표면에 칠보를 한 초창기 형태의 그릇을 제작하였다. 김미연은 곡면에 유선칠보로 섬세하고 때론 화려한 장식적 요소로 표현하였다. 함은 전통적 형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많은데, 안명선의 작품은 우리의 전통 도자기 ‘장군’의 형태를 작은 금속으로 형태를 만들었으며, 배창숙은 옛 여인들이 사용한 경대에 칠보 장식을 함으로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으로 조형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칠보 작품은 실용적 기능보다는 감상적인 조각과 회화의 예술성을 추구한 작품들이 많이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칠보가 금속에 색채 표현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장미연과 이정임은 금속, 조명속은 나무로 조각적 형태를 만들어 칠보의 미묘한 색채를 담아내고 있다. 장식성을 지닌 평면에 회화성을 추구한 작가로 최경자는 문양을 주로 이용하여 타일크기의 금속판을 연속 배열한 작품을 발표하였고, 추원고는 차원이 다른 표현기법으로 칠보 가루유약을 사용하여 칠보작품을 수채화처럼 표현하였다. 고명진은 새롭게 금속 망을 소재로 한 실험적 칠보로 모시에 꽃수를 놓은 듯 한국적 미를 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6) Turner, Ralph, Jewelry in Europe and America: new times, new thinking. Thame & Hudson, 1996, p.16.

[표 3] 유형분류에 따른 작가의 작품과 표현 사례

표현 특성 소분류		이미지와 작가 (출품년도)		
주얼리의 형식적 변화				
		김경희 2003	유미현 2012	최연정 2019
	전통과 장식성			
	김선봉 1989	김미연 1998	김명희 2013	
전통과 장식성 의 재해석	전통적 합의 재해석			
		안명선 2004	배창숙 2015	박미향 2018
	오브제 장식			
	장미연 1995	이정임 2006	조명숙 2012	
조각과 회화적 예술성 의 추구	벽장식의 회화성			
		최정자 1994	추원교 1998	고명진 2013
	기타			
	최순정 1998	백경동 2010	정복희 2017	

그 외기타 작품으로 칠보가 자유롭고 다양한 작품 활동에 활용되었다. 금속의 특성으로 입체나 평면에 상관없이 바탕을 만들고, 칠보 색채의 다채로움을 활용하여 배경동의 펜 표면 장식등의 작은 생활 소품에서 정복희가 보여준 목재 고가구의 표면 문양 장식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현대 칠보의 활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출품되었다.

## 4. 조형적 특성 분석

### 4-1. 칠보 바탕 소재 특성

칠보는 금속, 점토, 유리 등의 바탕 소재에 유약을 얹어 소성하여 색상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기능에 따른 소분류 7가지를 대상으로 표현특성별 소재를 보면 모

든 표현에서 금속소재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로 보면 99.3%가 칠보작품의 바탕 소재로 금속을 사용하였다.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로 2007~ 2009년 조진숙의 도자 바탕의 칠보 장신구의 시도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작품 출품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그 후 2019년에 이정희의 도자 식기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데, 칠보 바탕소재에서 도자의 확대가 기대된다.



[그림 2] 도자가 바탕이 된 칠보 작품 사례

칠보 작품의 바탕 소재로 금속을 주로 선택한 이유는 금속 소재의 특성과 유약색의 표현에 따라 보석의 미세한 색조를 모방할 수 있고, 디자인을 원하는 색채 및 질감 효과로 주제 표현(7)을 할 수 있으며, 금속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입체적 성형 방법과 칠보 표현 방법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속 중에 순금(純金)은 고온에서도 거의 팽창을 하지 않아 뒤틀면 유약작업이 불필요하며, 칠보를 했을 때 그 색이 선명하고 광택도 우수하여 바탕소재에 매우 적합하다. 그러나 고가의 귀금속 재료로 수공예에 적합하며 칠보 작업에 반가공(turning)이 도입된 이후 사용 빈도가 줄었다. 순은(純銀)은 특유의 백색으로 칠보 유약이 맑고 깨끗하게 발색되는 우수함이 있다. 연속된 소성에도 산화되지 않고 유약의 발색이 변화되지 않는다. 은 92.5%는 순은보다 다소 낮은 용융점과 단단하여 가공성이 우수하여 칠보 작품을 소성할 때 형태유지가 용이하다. 동(銅)은 붉은빛 갈색으로 고온에서 사용하기 쉽고 작업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점도 적다. 금속 공예가들의 가장 친숙한 소재이며 값싸고 전연성이 풍부하여 금속공예의 기본 장비와 기초적 테크닉으로도 성형이 가능해 소재로서 무한한 조형성을 지니고 있다.

7) 유미현, 금속망 소재의 에나멜 표현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학술지, Vol.4 No1, 2019, p.85.

**[표 4] 칠보 바탕 재료 분석 현황**

기능	주얼리	그릇	함	오브제	벽장식	기타	소계
금속	421 99.5	184 99.5	70 100.0	97 98.0	585 100.0	130 96.3	1,487 99.3
도자	2 0.5	1 0.5	-	-	-	-	3 0.2
기타	-	-	-	2	-	5	7
소계	423	185	70	99	585	135	1,49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 소재 활용**

**4-2-1. 금속 소재의 사용 특성**

[표 5]는 [표 4]의 금속 소재만을 대상으로 유형별 사용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주얼리 소재에는 은(57.0%)이 주로 사용되고, 벽장식(95.1%) 및 오브제(82.2%)에서는 동이 사용되는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소재의 사용은 재료의 가공기법과 사용량, 및 소재의 가치를 작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은 소재는 소독 증대와 함께 주얼리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큰 형태의 함 또는 벽장식에서는 적동 바탕을 은박으로 싸서 은의 느낌으로 작품이 제작되었다.

**[표 5] 바탕 금속 소재 분석 현황**

기능	주얼리	그릇	함	오브제	벽장식	기타	소계
금속							
금	-	1 0.5	-	-	1 0.2	-	2 0.1
은	244 57.0	56 30.1	35 49.3	16 15.8	24 4.1	38 27.7	413 27.3
동	174 40.7	128 68.8	35 49.3	83 82.2	560 95.1	94 68.6	1,074 71.0
기타	10 2.3	1 0.5	1 1.4	2 2.0	4 0.7	5 3.6	23 1.5
소계	428	186	71	101	589	137	1,512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칠보 바탕 금속의 형태는 선재, 판재, 망,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바탕에 사용되는 금속소재는 에나멜의 회화적 표현을 위하여 평면의 캔버스처럼 사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각적 입체 오브제에 색채로 활용되기도 한다. 주얼리의 경우 금속의 형태도 선재 판재 망 등으로 다양하며, 평면, 입체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였다. 반면 벽장식의 경우 동판을 판재 그대로 잘라 마치 사각형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 듯 회화적인 작품이 대다수였다. 판재를 바탕 금속으로 활용한 칠보 기법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클로아조네(cloisonn

é)는 섬세하고 화려한 표현으로 이 기법이 가진 매력 때문에 전통적으로 작품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표 6] 금속 소재 형태 분석 현황**

기능	주얼리	그릇	함	오브제	벽장식	기타	소계
형태							
선재	22 5.1	-	-	5 5.0	7 1.2	4 2.9	38 2.5
판재	373 86.7	183 98.4	70 98.6	88 88.0	567 94.7	122 89.1	1,403 92.1
망	12 2.8	1 0.5	1 1.4	4 4.0	23 3.8	4 2.9	45 3.0
기타	23 5.3	2 1.1	-	3 3.0	2 0.3	7 5.1	37 2.4
소계	430	186	71	100	599	137	1,523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2-2. 타 재료와의 혼용 특성**

[표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칠보의 바탕소재가 금속(99.3%)이 주류이지만, 작품 특성상 주얼리와 오브제 및 벽장식으로 장식적 요소가 강한 품목은 타 재료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표 7]을 보면 그릇과 함은 담을 수 있는 기능에 따라 나무(23작품)의 사용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식적인 면에서 칠보의 표면에 광택이 있는 유리질과 조화를 이루기 적합한 보석의 사용이 108작품(5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현 기법에서 주얼리에서 타 재료 혼용으로 보석(97작품, 85.1%)이 압도적인 활용도를 보여주는 것은 주얼리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표 7] 칠보 유형별 타재료 혼용 작품과 비율**

기능	주얼리	그릇	함	오브제	벽장식	기타	소계
타재료							
나무	5 4.4	8 80.0	15 93.8	9 45.0	5 33.3	8 42.1	50 25.8
유리	1 0.9	1 10.0	-	3 15.0	2 13.3	3 15.8	10 5.2
보석	97 85.1	-	-	5 25.0	4 26.7	2 10.5	108 55.7
기타	11 9.6	1 10.0	1 6.3	3 15.0	4 26.7	6 31.6	26 13.4
소계	114 58.8	10 5.2	16 8.2	20 10.3	15 7.7	19 9.8	194 100

칠보 재료 중에 가장 빈도가 높았던 보석(55.7%) 중에서 진주(41.8%)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며, 주된 표현으로는 주얼리(46작품, 37.7%)에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진주의 뒤를 이어 준보석(34.4%), 유색석(19.7%)이 사용되고 있다.

8) 순금, 순은 판으로 제작한다. 가늘고 긴 금속선으로 형태를 만들어 금속판에 접합시키고, 셀 안에 유약을 채워서 소성하면 금속의 윤곽이 나타나는 기법이다.

[표 8] 칠보 유형별 보석 혼용 작품과 비율

기능 보석	주얼리	그릇	함	오브제	벽장식	기타	소계
큐빅	5 4.1	-	-	-	-	-	5 4.1
진주	46 37.7	-	-	2 1.6	2 1.6	1 0.8	51 41.8
유색석	22 18.0	-	-	1 0.8	1 0.8	-	24 19.7
준보석	37 30.3	-	-	3 2.5	1 0.8	1 0.8	42 34.4
소계	110 90.2	-	-	6 4.9	4 3.3	2 1.6	122 100.0

### 4-3. 주제와 유형

#### 4-3-1. 기간별 주제 특성

현대 칠보작품의 시기별 주제를 보면 Ⅰ~Ⅲ시기에는 추상적인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20세기 시작(Ⅳ시기 이후)과 더불어 꽃을 주제로 작품 수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꽃은 아름다움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장신구의 소재로도 적합할 뿐 아니라 꽃의 형태는 미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함께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유연한 곡선의 조형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친숙한 예술의 대상으로 칠보에 필요한 금속재료의 표현에서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주제를 바꾸어줄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주제로는 사람과 기타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다.

[표 9] 기간별 작품 주제

주제 기간	꽃	사람	동물	자연	문양	추상	기타	소계
Ⅰ	3 2.7	-	2 1.8	28 25.0	14 12.5	58 51.8	7 6.3	112 100.0
Ⅱ	8 6.3	6 4.7	3 2.3	35 27.3	17 13.3	46 35.9	13 10.2	128 100.0
Ⅲ	12 7.8	8 5.2	3 2.0	33 21.6	14 9.2	69 45.1	14 9.2	153 100.0
Ⅳ	40 26.3	8 5.3	8 5.3	28 18.4	23 15.1	18 11.8	27 17.8	152 100.0
Ⅴ	90 41.7	14 6.5	10 4.6	30 13.9	34 15.7	27 12.5	11 5.1	216 100.0
Ⅵ	136 35.1	40 10.3	23 5.9	66 17.1	32 8.3	78 20.2	12 3.1	387 100.0
Ⅶ	97 27.8	32 9.2	15 4.3	66 18.9	40 11.5	68 19.5	31 8.9	349 100.0
소계 (%)	386 25.8	108 7.2	64 4.3	286 19.1	174 11.6	364 24.3	115 7.7	1,497 100.0

 : 가장 빈도가 높음

#### 4-3-2. 작품 유형별 주제 특성

작품의 주제 특성을 보면 꽃(386작품, 25.8%)을 주제로 한 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꽃의 형태는 미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함께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유연한 곡선의 조형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예술의 대상이다. 이점에서 볼 때 칠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티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추상(364작품, 24.3%)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았다. 이것을 작품 표현별로 살펴보면, 벽장식(585작품)에 가장 많은 사용이 보이는데, 벽장식에서는 추상(135작품, 23.1%), 자연(143작품, 24.4%), 꽃(132작품, 22.6%)순으로 많았다.

[표 10] 칠보 유형별 주제의 종류

기능 주제	주얼리	그릇	함	오브제	벽장식	기타	소계
꽃	107 25.3	69 37.3	29 41.4	11 11.1	132 22.6	38 28.1	386 25.8
사람	30 7.1	3 1.6	2 2.9	6 6.1	59 10.1	8 5.9	108 7.2
동물	21 5.0	6 3.2	-	8 8.1	24 4.1	5 3.7	64 4.3
자연	65 15.4	32 17.3	8 11.4	19 19.2	143 24.4	19 14.1	286 19.1
문양	49 11.6	24 13.0	15 21.4	7 7.1	58 9.9	21 15.6	364 11.6
추상	118 27.9	44 23.8	11 15.7	35 35.4	135 23.1	21 15.6	364 24.3
기타	33 7.8	7 3.8	5 7.1	13 13.1	34 5.8	23 17.0	115 7.7
소계 (%)	423 100	185 100	70 100	99 100	585 100	135 100	1,49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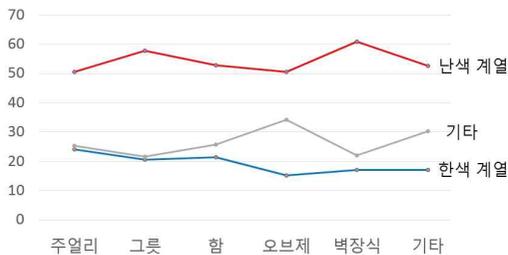
#### 4-4. 색채 특성

색채는 기본적으로 회화의 조건이지만, 칠보는 금속 공예에 있어서는 회화적 평면성 뿐만 아니라 조각적 입체성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어 작가의 창의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며 새로운 기법과 재료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색채는 작품 전체 이미지 컬러로 크게 분류하여 난색, 한색, 기타 색으로 분류하였다. [표 11]을 보면, 시대와 무관하게 빨강 또는 노랑계열의 난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V시기(2005~2009년)에 난색 사용이 최고 빈도(135작품, 62.5%)이다. [표 9]와 중첩해서 보면 꽃과 추상적 작품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난색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3]의 작품 표현에서도 모든 표현에 공통되고 있지만 벽장식(356작품, 60.9%)과 그릇(107작품, 57.8%)에 사용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기간별 작품에 나타난 색채

기간	색채			소계
	난색	한색	기타	
I	47	18	47	112
	42.0	16.1	42.0	100.0
II	71	18	39	128
	55.5	14.1	30.5	100.0
III	59	36	58	153
	38.6	23.5	37.9	100.0
IV	84	28	40	152
	55.3	18.4	26.3	100.0
V	135	45	36	216
	62.5	20.8	16.7	100.0
VI	231	71	85	387
	59.7	18.3	22.0	100.0
VII	208	77	64	349
	59.6	22.1	18.3	100.0
소계 (%)	835	293	369	1,497
	55.8	19.6	24.6	100.0

■ : 가장 빈도가 높음



[그림 3] 칠보 유형별 사용 색채

## 5. 결론

한국의 현대 칠보공예는 삶의 시적 경서를 다양한 색채를 통해 조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형성의 깊음을 연주할 수 있는 특별한 장르이다. 본 연구는 한국 칠보협회 협회전을 통해 37년간 발표된 작품 1,497점을 대상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기능에 따른 분류와 작가의 작품에 담긴 기능별 특성, 소재, 색채 등의 분석을 통해 칠보공예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거에서 현대로 올수록 출품 작품의 수가 증가하고 출품의 성향도 많은 변화가 발생 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국민소득의 증가가 배경에 있었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주얼리를 활용한 작품과 예술적 오브제와 벽장식이 증가하고, 생활 밀착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릇 및 함의 비중이 확연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칠보 바탕 소재로는 금속을 99.3%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벽장식(585개)과 주얼리(421개)가 차지하는 작품수가 가장 많았다. 금속에서는 주얼리(57%)와 함(49.3%)은 은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릇(68.8%), 함(49.3%), 오브제(82.2%), 벽장식(95.1%), 기타(68.6%)에서는 동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칠보 바탕 금속의 형태는 모든 기능에서 판재의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셋째, 칠보의 바탕소재가 금속이 99.3%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작품 특성상 주얼리와 오브제 및 벽장식으로 장식적 요소가 강한 품목은 타 재료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얼리가 보석(85.1%)을 혼용하고, 그 외 기능에서는 모두 나무(33.3%~93.8%)를 혼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넷째, 시대별 주제특성을 보면 초창기(1983~1999)에는 추상적인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부터는 여유로운 경제 여건이 반영된 결과, 주제가 다양해지는 속에서 꽃을 이용한 작품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칠보는 금속공예이지만 색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시대와 무관하게 빨강 또는 노랑계열의 난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2005~2009년 사이에 난색 사용이 최고 빈도(135작품, 62.5%)를 이루고 있었는데, 작품 대상은 35.1%가 꽃이며 추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20.2%였다.

한국 현대 칠보는 많은 작가들의 표현양식 추구로 현대에 와서 놀라게 발전되었으며, 독창적인 개성을 표현한 작품이 주목받는 시대이다. 주얼리는 크기, 색채, 소재, 기법의 형식적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그릇과 함은 실용적 기능에 전통과 장식성의 재해석으로 표현되었다. 회화와 조각적 예술성을 추구한 오브제와 벽장식은 순수 예술성의 표현으로 그리고, 작은 생활 소품에서 목재 고가구의 표면 장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현대 칠보의 활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렇듯 작가의 창의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며 새로운 기법과 재료의 발전은 칠보 공예에 무한의 세계를 열고 있다. 전통적인 칠보를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으로 기술과 심미적 컨셉을 조화롭게 대중화시킨다면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글로벌 시대에 새로운 한국적 트렌드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영희, [신비로운 색을 창조하는 칠보공예], 한림출판사, 1982
2. 노용숙, [아름다운 빛깔구이 칠보예술], 미진사, 2000
3. 클레어 필립스, 『장신구의 역사』, 김 숙 옮김, 시공사, 2005
4. Linda Darty, [The Art of Enameling], Lark Books, 2004
5. Marthe Le Van, [500 ENAMALDE OBJECTS], Lark Books, 2007
6. 박수경, 한국 칠보공예 역사와 현황, Journal of Oriental Culture & Design, 3(2), 2012
7. 성다솜, 1960년대~1980년대 한국 현대 칠보공예의 양상, 기초조형학회, 18(6), 2017.10
8. 이소현, 한국장신구의 발생과 그 배경, 기초조형학회, 16(5), 2015.
9. 유미현, 금속망 소재의 에나멜 표현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19.
10. 유미현, 미국에나멜 브로치의 생성과 조형적 표현,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14.
11. 장동광, 불과 색채의 예술, 그 변주성의 미학, (사)한국칠보공예디자인협회 30주년 기념전에 부쳐, (사)한국칠보공예디자인협회전 도록, 2012.
12. (사)한국칠보협회 도록, 2008~2019
13. Turner, Ralph, Jewelry in Europe and America: new times, new thinking. Thame & Hudson, 1996,
14. <http://www.koreaenameling.com>
15. <http://news.joins.com/article/23109741>